

고교당 제주 2.5명·강원 2명… 지역별 의대진입 격차 커진다

지역의사제 도입 충청 2.1명·호남 2명
전국 평균 학교당 1.7명으로 늘어
동일대 전형별 합격선 차이 커질 듯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제주권 고교당 의대 합격 가능 인원이 1명에서 2.5명으로 늘고 강원권 1.1명에서 2명, 충청권 1.3명에서 2.1명으로 각각 증가하는 등 지역별 격차가 커질 전망이다.

종로학원이 12일 교육부의 지역의사제 증원(안)과 2026학년도 지역인재 전형 선발 규모를 토대로 전국 일반고 1112개교와 지역의사제 대상 의대 32개 대학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다.

현행 지역인재 전형만 놓고 보면 가장 유리한 지역은 호남권이다. 2026학년도 기준 호남권 4개 의대가 지역인재로 352명을 선발하고, 권역 내 일반고가 230개교여서 학교당 평균 1.5명 합격이 가능한 구조다. 이어 ▲충청권 1.3명 ▲대구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지역간 유불리 분석〉 /종로학원

No	지역	학교수 (일반고)	학교당 평균 합격인원(일반고)		증감
			현행(지역인재)	지역의사제 도입 후 (지역인재+지역의사제)	
1	제주	22	1.0	2.5	1.6
2	강원	85	1.1	2.0	0.9
3	충청	188	1.3	2.1	0.8
4	대구경북	187	1.2	1.7	0.5
5	호남	230	1.5	2.0	0.5
6	부울경	282	1.1	1.5	0.4
7	경인	118		0.3	0.3
평균		1112	1.2	1.7	0.4

경북 1.2명 ▲부울경 1.1명 ▲강원권 1.1명 ▲제주권 1.0명 순으로 분석됐다. 지방권 전체 평균은 학교당 1.2명이다.

여기에 교육부의 지역의사제 증원(안)을 더하면 판도가 달라진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추가 확보되는 인원을 고교당 평균으로 환산하면 ▲제주권 1.6명 ▲강원권 0.9명 ▲충청권 0.8명 ▲대

구경북 0.5명 ▲호남권 0.5명 ▲부울경 0.4명 ▲경인권 0.3명으로 추정됐다.

기존 지역인재와 지역의사제를 합산한 최종 구조로 보면, 제주권이 학교당 2.5명으로 가장 많고 ▲충청권 2.1명 ▲호남권 2.0명 ▲강원권 2.0명 ▲대구경북 1.7명 ▲부울경 1.5명 ▲경인권 0.3명 순이다. 제주권 수치가 단순히 1.0과

1.6을 더한 값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소수점 반올림과 산정 대상 학교 수 기준이 달라 발생한 결과다. 경인권의 경우 현행 지역인재 전형 몫이 0명으로 산정돼 지역의사제 추가분 0.3명이 그대로 최종치에 반영됐다.

전국 평균은 학교당 1.7명으로 현행 1.2명보다 0.5명 늘어난다.

현행 대비 증가 폭은 제주권이 1.5명으로 가장 크고 ▲강원권 0.9명 ▲충청권 0.8명 ▲대구경북 0.5명 ▲호남권 0.5명 ▲부울경 0.4명 ▲경인권 0.3명 순이다.

종로학원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제주권이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되고, 강원권과 충청권이 뒤를 이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변화로 지역 간 격차는 지금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인재 전형만 운영될 때는 학교당 합격 가능 인원이 최대 1.5명에서 최소 1.0명으로 0.5

명 차이에 그쳤지만, 지역의사제가 더해지면 최대 2.5명에서 최소 0.3명으로 2.2명까지 벌어진다. 지방권 6개 권역 안에서도 2.5명에서 1.5명으로 1.0명 차이가 발생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유불리 지역 정도에 따라 지원 경쟁률과 합격선 변동 폭이 커지고, 대학 간·지역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동일 대학 내에서도 일반전형과 지역인재,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대학 진학 이후에도 (중도 이탈이나 재지원, 미충원 충원 방식 등) 전형 간 이동이나 이탈 등 다양한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며 “지역의사제가 기존 지역인재 전형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트랙으로 운영되는 만큼 실제 지원 패턴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20개 대학, 1년간 유학생 비자 발급 제한

교육·법무부, 비자정밀 심사대학 지정
우수대학, 심사 절차 간소화 등 혜택

협성대·금강대·대구한의대 등 20개 대학이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돼 올해 2학기부터 1년간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이 사실상 제한된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심사 및 유학생 유치·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유학생 증가에 따른 부실 관리와 불법체류 문제를 막기 위해 매년 대학의 유학생 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평가 결과 학위과정 16개교와 어학연수과정 4개교 등 총 20개 대학이 비자정밀 심사대학으로 분류됐다. 이들 대학은 2026년 2학기부터 1년간 신규 유학생 비자 발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대학이 제도 개선 의지를 보일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학위과정에서는 총 16개 대학이 비자

정밀 심사대학으로 지정됐다. 일반대 4곳은 금강대, 수원가톨릭대, 중앙승가대, 협성대다. 전문대 3곳은 부산경상대, 부산예술대학, 한영대학이다. 대학원대학 9곳은 구세군사관대학원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능인대학원대, 성서침례대학원대, 순복음대학원대, 에스라성경대학원대, 치유상담대학원대, 한국상담대학원대, 합동신학대학원대다.

어학연수과정에서는 대구한의대와 상지대, 호원대 등 4개교가 포함됐다. 정부는 이들 대학이 유학생 불법체류율과 중도탈락률, 공인 어학능력 충족률 등 주요 관리 지표에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2012년 도입돼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관리 수준을 매년 평가하는 제도다.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가운데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비자심사 강화대학으로 지정돼 단계별 제재를 받는다.

반면 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은 늘

었다. 올해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81개교, 어학연수과정 123개교로 전년대보다 각각 증가했으며, 이 중 경희대, 고려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인하대, 중앙대 등 39개교는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됐다. 인증대학에는 유학생 비자 심사 절차 간소화, 정부초청장학금(GKS) 참여 우대, 해외 한국유학박람회 참가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우수 인증대학은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비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는 2025년 25만3000명으로 2024년 20만9000명보다 약 21% 늘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양적 확대와 함께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교육부와 법무부는 “유학생 급증에 맞춰 언어능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학업·생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부실 유치·관리 대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한국 유학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영유아 위한 독서교육 자료 개발·배포

서울시, 0~2세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
독서 역량 강화하고 교육 격차 완화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생애 초기 독서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영유아 그림책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해 관내 유치원·어린이집과 전국시·도교육청에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 주로 유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독서교육 지원을 어린이집까지 넓히고, 특히 0~2세 영아를 위한 맞춤형 자료를 새로 마련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시교육청이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한 그림책 놀이 콘텐츠를 직접 개발해 보급하는 첫 사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어디에서나 질 높은 독서교육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생애 초기 독서역량을 강화하고 기관 간 교육 격차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대상별 특성에 맞춰 ▲영

아편 ‘그림책 함께 읽기로 보육과정 실행하기’ ▲유아편 ‘그림책 놀이 교육·보육과정 실행하기’ 등 총 2편으로 구성됐다. 자료에는 ▲그림책 놀이 사례 33차시 ▲교사용·부모용 동영상 12종 ▲부모 교육용 카드뉴스 10종이 포함됐다. 교사의 현장 이해를 돕는 동시에 가정과 연계한 부모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프로그램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0~2세 영아용 책놀이 꾸러미(그림책 5종, 교수·학습자료 7종)를 관내 어린이집 100개 기관에 시범 보급했으며, 올해 약 2000여 개 기관으로 확대 보급해 보육과정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영유아 교사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그림책 놀이 워크숍에서 현장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2026년부터 연수 규모를 확대해 교사의 실행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

트럼프 차남, K-스타월드 호텔 부지 방문

글로벌 협력 가능성 타진

하남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에릭 트럼프 트럼프 그룹 총괄 부사장이 11일 시의 핵심 역점 사업인 ‘K-컬처 콤플렉스(K-스타월드)’ 호텔 사업 예정 부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하남시에 따르면 에릭 트럼프 부사장은 전날 위례 성남골프장 부지를 찾은 데 이어 연이틀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시는 이번 방문이 사업 타당성과 입지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려는 트럼프 그룹 측 관심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 안내에 나선 이현재 하남시장은 유니온타워 전망대에서 에릭 트럼프 부사장을 맞이해 사업 청사진을 직접



이현재 하남시장이 11일 유니온타워 전망대에서 에릭 트럼프 트럼프 그룹 총괄 부사장에게 ‘K-컬처 복합 콤플렉스(K-스타월드)’ 예정 부지를 안내하며 사업의 핵심 비전을 설명하고 있다. /하남시

설명했다. 시는 전망대(약 105m 높이)에서 한강변 부지를 조망하며 사업 비전과 입지적 강점, 글로벌 체류형 관광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전했다. /하남(경기)=유진채 기자 yujin@

고지대 모노레일·엘리베이터 설치 늘린다

서울시, 100곳까지 단계적 조성

서울시가 추진 중인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사업이 확대된다. 서울시는 설치 대상지 10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체 지형의 약 40%가 해발 40m 이상 구릉지로 이뤄져 있고, 고령자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서울 시민의 28.3%(2023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지와 대중교통, 공원, 생활편의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연결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춰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 등 생활밀착형 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2단계 대상지는 지난해 9월 시민 공모를 시작으로 자치구 검토와 현장 조사, 이용 수요 분석을 거쳐 확정됐다.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는 접수된 후보지 55곳 가운데 경사도 30% 이상 급경사 계단을 중심으로 이용 수요와 생활 동선 개선 효과가 큰 지역을 검토해 10곳을 선정했다.

2단계 설치 대상지는 강북권 6곳과 서남권 4곳 등 총 10곳이다. ▲구로구 고척동 ▲동작구 사당동 ▲금천구 시흥동 ▲마포구 신곡동 ▲성동구 옥수동 ▲용산구 청암동 ▲종로구 무악동 ▲성북구 하월곡동 ▲관악구 봉천동 ▲서대



구로구 고척동98-79. 고지대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후 예상 모습. /서울시

문구 영천동이 포함됐다.

대상지에는 지역 여건에 맞춰 수직형·경사형·복합형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초등학교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접근성을 높인다. 장애인과 고령자, 어린이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시설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현진 기자